

구라보의 데님 5개 키워드로 소재개발

구라보는 금년(2001년) 추동절부터 개발한 데님소재의 키·워드(key word)로 ①새로운 블루의 색상 ②중고(中古)가공 ③경량 ④스트레치 소재의 차별화 ⑤복합소재의 5개를 선정하였다.

현재 레이디즈(ladies)의 “허리가 밑으로 내려가고(low), 다리길이가 짧아져 위로 올라온(rise)” 로오·라이즈·진즈 붐으로 인디고·블루의 중고가공에 이목(耳目)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된다고 보고 있지만, 구라보에서는 신선한 블루의 색상과 새로운 2차 가공수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트레치·데님은 시장에서 흔히 통용되는 규격으로 되어 있지만 스트레치·데님의 차별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량화」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인 라이트·온스(light ounce) 데님과는 달리 중공사(中空社) 「스핀에어」 말고도 케이팩 혼방이나 폴리에스테르 혼방 등의 복합소재로 다른 데님과 같이 두툼한 느낌을 주면서도 경량화된 소재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규격화된 스트레치 소재 대신에 표면이 다르게 변화된 스트레치 소재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스트럭처·얀(structure yarn)의 스트레치 소재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 실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있다.

복합화는 먼 100% 이외의 새로운 소재와의 복합화를 중요시하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